

강원도 중학생의 성 태도와 경험

양순옥* · 정금희* · 백성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성은 태어나면서 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부분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인간의 발달은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연속적 과정이므로 성은 발달의 어느 단계에 있어도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에 대한 문제는 어떤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는 생식기관이 성숙단계에 이르고 정신적으로는 인지발달로 자신의 실체를 살펴보고, 자신이 처해 있는 세계와 성의 의미를 생각하며 성인으로서의 역할이나 개성을 키우려는 계획과 생애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와 경험은 생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김영희와 이명화, 1997).

사회는 청소년들의 중요한 성 학습장이므로 사회현상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주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Cassel, 1981).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개방화가 성에 관련된 사회현상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서구의 성개방 풍조의 유입과 성의 도구화, 상품화로 인한 저속한 성문화의 범람, 특히 대중매체에서 노골화된 성적 표현, 향락산업의 번성 등은 성 윤리관의

아노미 현상 등을 초래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 또한 성범죄의 증가와 성병 문제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예방은 물론 치료적 차원에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송정부, 1992a; 김수지, 노춘희, 1990).

성교육은 일차적으로는 가정교육 기능의 범주속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가정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잘 지도하고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역할이 동일시 되어 점차 성인으로서 준비를 시키는 곳이기 때문이다(김한경, 1983; Cassel, 1981; Heisler, 1980).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속에 성장하는 자녀를 가정에서만 교육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므로 학교 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는 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발전과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기능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도와 주어야 한다(김한경, 1983; Rubinson, 1981).

성교육이란 단순히 인간의 생리적 구조와 기능이나 해부학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교육으로서, 인간을 이해하며 인간의 가치추구와 직결되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장발달에 맞는 성 지식, 태도 및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어 성적 욕구를 승화시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나아가 여성과 남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춘천중학교 양호교사(강원 비교교육연구회)

성의 대등한 인격자로 남녀관계를 정립하고 바른 성 윤리관을 통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이순열, 1991; 이요식등, 1992; 안창선과 김현옥, 1991).

그러나 청소년의 성에 관한 지식이나 태도는 부모나 교사로부터 교육받기 보다는 친구나 선배 또는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안창선등, 1991). 청소년은 동료집단이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성문제를 해결하므로 대부분 왜곡된 성 인식을 갖기 쉽다.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 태도와 인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임미림, 1996). 특히 중학생은 13-16세 사이의 사춘기로서 신체, 심리적으로 아동기와 구별되는 과도기로 볼 수 있고 생의 준비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느 시기 보다도 성숙과 학습의 가능성이 풍부한 시기이므로 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블레이, 1982). 그러나 정상적인 성의 발달과 성숙을 자연스럽게 건전하게 받아들이고, 왜곡된 성 태도나 일탈 성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실제 일탈 성행위로 고민하는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속에 사춘기 전반기의 빠른 성숙과 학습의 가능성이 풍부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정상 성 발달과 일탈 성행위에 대한 태도와 경험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이 직면한 성에 대한 바른 생각과 태도 형성을 돕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정상 성 발달과 일탈 성 행위에 대한 태도와 경험을 확인하여 성에 대해 바른 태도와 행위를 형성할 수 있는 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사정하는데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사회적 특성을 확인한다.
- 2) 성별에 따른 정상 성 발달에 대한 태도와 경험을 확인한다.
- 3) 성별에 따른 일탈 성 행위에 대한 태도와 경험을 확인한다.

- 4) 성별에 따른 성교육의 경험과 요구에 대해 사정한다.

3. 용어의 정의

성 태도와 경험: 성과 관련된 개인의 견해, 지각과 경험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가지로 정상 성 발달과 일탈 성행위에 대한 태도와 경험으로 나누어서 보았다. 정상 성 발달 태도와 경험은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성적 성숙과 변화와 관련되어 초경과 몽정, 자위행위와 성충동과 이성교제 등과 관련된 내용이고, 일탈 성행위 태도와 경험은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청소년 성행위로 음란매체, 신체적 성접촉, 성교, 성폭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강원도 일 지역에 국한된 연구 조사이므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 태도와 경험이나 교육 요구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II. 문헌 고찰

1. 청소년과 성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죽을 때까지 성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성에 대한 문제는 어느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 까지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빠른 신체 성숙과 함께 정신적으로는 처해 있는 세계와 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미래 성인으로서의 역할이나 개성을 신장시키려는 계획과 생의 설계를 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의 성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김영희와 이명화, 1997).

청소년은 민법에서는 20세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미만을, 청소년육성법은 9세이상 24세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과 성의 관계를 말할때 청소년기는 사춘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의 약 10년을 포함하여 대략 11세에서 20세의 연령군을 말한다(김언희와 정문숙, 1993). 산업사회에서는 청소년기를 사회적 성숙, 즉 사회경제적 독립을 기준으로 심리적으로는 아동기와 성인기 어느쪽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않은 주변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심리적인 적응을 추구하는 시기로 보아 육체

적 성숙과 밀접하게 관련된 연령만으로는 청소년을 규명하기는 어렵다고도 본다.

Havighurst(1972)는 성과 관련된 청소년의 발달 과업으로 새로운 사회성과 성 역할 습득, 신체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부모나 주위 어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그리고 자신의 성에 대해 책임질 것을 준비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Stevens-Long & Cobb, 1983; Dacy, 1986). Freud(1958)는 청소년기를 혼란의 기간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겪는 과도기적 시기로 성격 발달의 마지막 단계라고 했다. 이 시기는 성에너지의 집중화, 재활성화와 관련되어 성적 주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성적 주체성의 확립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면, 본능적 충동이 증가하게 되어 사소한 욕구좌절에도 쉽게 문제행동이 나타나고 성격 발달 장애를 초래하여 사회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병적 행동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성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수 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개방적 사회 분위기속에서 건강과 정서적 성숙은 물론 신체적 성숙이 빨라지고 있다. 또한 교육기간의 연장, 결혼 연령의 지연, 가족간의 영향력 감소, 대중매체와 정보화 사회의 접촉 기회 증대 등은 성에 대한 가치나 신념의 변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성적인 행동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1989)는 이런 내 외 변화와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의 성장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어서, 세계적으로 성교 연령의 저하, 성병의 증가, 원치 않는 임신의 증가, 인공 임신중절의 증가, 출산의 증가, 청소년 연령층의 피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연구 보고에서 나타나고 있다(김한경, 1983).

이런 사회적 추세와 더불어 청소년의 성적 성숙과 관련된 지식 부족은 적응과정에서 심리적 갈등을 가져온다. 그러나 누구도 성에 관한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 문화에서는 성은 드러내어진 상태 보다는 감추어지고 은밀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음성적이고 폐쇄적 방법으로 배우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최순희, 1990). 특히, 청소년은 성적인 면에서 신체적으로 성행위를 할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있지만 사회적 제약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최양자, 1987). 따라서 기성세대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을 성적 욕구를 지닌 대상으로, 계속적으

로 성숙해 나아가는 성적 존재로서 바르게 이해하고, 청소년은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함께 올바른 인식, 가치관,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청소년의 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질 때 청소년의 성적 자립은 물론 나아가 건전한 성문화가 토착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상 성 발달과 성 일탈 행위

청소년기는 다양한 변화과정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자아개념과 자아상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다. 청소년 초기에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활력과 이미지를 가져오며, 아동기와 구별되는 정서적 복잡성과 은밀한 성적 자극을 내부에서 경험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설계하게 되며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대에 직면하게 된다. 청소년의 다양한 변화 중 성적 성숙은 청소년기에 나타나지만, 실제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성인이 된 후 즉, 청소년후기에 가서야 성적 욕구와 진정한 의미의 친밀감이 통합된다. 따라서 빠르게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에 이르는 청소년 전기는 성적 공상과 호기심이 많은 시기이므로, 이때 정상적인 성발달과 일탈 성 행위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의 형성이 중요하다.

1) 청소년의 정상 성 발달

청소년기의 성적 성숙은 남녀의 특성에 따라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자신의 성 뿐만 아니라 반대 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성의 성적 성숙의 신호는 유방과 음모의 출현으로 신장의 급성장 현상이 나타난 직후에 나타난다. 지속적인 유방의 발달과 함께 자궁과 질이 가속적으로 발달하고 음순과 음핵이 커지면서 10-16세 사이에 초경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청소년녀는 초경에 대하여 혼합된 감정을 경험하고 문화에 따라서도 차이가 심하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춘기는 종래의 13-14세에서 10-11세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고,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5, 6학년에 유방이 표출되는 신체 변화를 경험하며 초등학교 졸업전에 과반수 이상이 초경을 경험하고 있다(조혜진, 1987). 정상적인 성 발달에 따른

경험 중 초경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은 '놀라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병이 난 줄 알았다', '놀라고 불안했다', '나쁜 느낌' 등의 부정적인 태도가 많았다(김옥렬, 1992; 이옥철, 1990). 초경은 사춘기 여성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이므로 월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정서불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부모는 딸이 여성으로 성장하고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부모의 태도와 신체 변화나 월경현상에 대한 이해 능력은 자녀가 성적 주제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서울특별시 간호사회, 1993).

남성의 성적 성숙은 개인차가 심하지만 발달 순서는 매우 일정하다. 음경의 성장은 11세-14세경에, 음모는 10-15세, 겨드랑이 털과 얼굴위 수염은 14세경 그리고 가슴의 털은 가장 늦게 나타난다. 사정의 경험은 10-13세 전후하여 사춘기 중반기에 경험하게 된다. 사정은 몽정이나 자위행위를 통해 또는 성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 몽정 경험에 대한 반응은 '병이 난 줄 알았다', '놀라고 불안했다'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청소년의 월경 태도에 비해 자연스런 현상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나타난다(김옥렬, 1992; 이옥철, 1990). 자위행위는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행해지는 성 행동인 동시에 가장 큰 성 고민 중 하나이다. 1993년 한해동안 청소년 상담기관에 의뢰해 온 상담내용 중 가장 많은 갈등과 고민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자위행위 내용이였다. 자위행위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는 대부분이 허용될 수 없다고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순희, 1990). 한국어성개발원(1994)의 연구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위행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실제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자위행위에 대한 죄의식은 많은 경우 성에 대해 무지하거나 잘못된 성지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올바른 성지식의 교육은 청소년 스스로가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 성적인 충동은 사고와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쳐 아동기에 지니고 있었던 순결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한다. 성충동의 유발은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일어 나기도 하고 혹은 우연히 유발되기도 한다. 키스나 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과 자극이나, 성적 환상이나 상상, 일상적인 우연한 자극 등에 의해 발생된다. 이같은 성충동의 유발은 연령이나 성별

구별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다. 성충동의 억제는 시대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 다양하다. 60-70년대 우리나라의 순결교육은 여성에게 이중 기준의 억제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경우, 가정을 파괴하지 않고, 임신을 초래하지 않거나, 성병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와 미성년에 대한 성행위와 강제에 의한 성행위를 제외하고는 크게 억제하지 않는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94). 중학생의 경우에 성충동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최순희, 1990). 청소년이 성충동을 갖는 것은 성장의 신호로 성에 대한 호기심은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어떻게 수용되어 전달되고 해결되는가 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성교육자는 성충동에 대한 태도와 경험세계를 잘 인식해야 한다.

성적 성숙과 함께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고 가장 주된 관심사는 이성교제에 대한 것이다. 이성교제는 부모는 물론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어떠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냐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에 대한 바른 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사춘기에 이성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은 평화로운 삶의 기초이며 여기에서 원만한 인간관계가 싹튼다고 볼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이거나 고학년일수록 이성교제를 더 원한다(김상옥등, 1992). 성적 성숙의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경험에 자연스러운 적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교육이 발달수준에 맞게 효과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2) 청소년의 일탈 성행위

청소년의 정상 성발달과정에서 성 태도의 형성은 직 간접적인 성세계의 경험을 통해 인식되어진 신념에서 출발하여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성 발달에 적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탈 성행위로 나타나기도 한다(한유정등, 1996). 일탈 성행위는 사회규범에 위반되는 성행동을 의미하므로 사회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과 함께 정신 문화가 물질 문화를 따르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으로 청소년의 가치관과 역할에서 혼란이나 세대간 갈등의 심화로 아노미와 소외 현상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문제를 가져왔다(김익기, 1991; 홍덕률, 1991). 이런 사회변화와 더불어 성 개방 풍조와 각종 대중매체에서 성 정보의 범람은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성범죄를 증가시키고 있다(송정부, 1992b; 임

회섭, 1991). 청소년 상담기관의 내용중 성문제가 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며, 성기능장애나 성관계와 같은 내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백제하, 1989). 이런 추세는 우리사회의 퇴폐향락 풍조 만연으로 청소년들은 소비적 욕망추구의 풍조를 조장하여 바른 성지식 및 태도를 갖지 못하게 하며, 또한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어른이 즐기는 음란물을 접하면서 성을 단순히 유희의 방법으로 생각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동아일보, 1987.8.20). 다른 한편으로는 성을 죄악시하거나 금기하는 사회 분위기나 정규적인 교육과정으로 배우지 못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교육을 지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함께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소외감이 성범죄를 야기하고 있다(김정태, 1992).

1996년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1995년 학생범죄의 유형별 분포에서 폭력 사범이 38.2%로 가장 많고, 절도 사범 22.5%, 강력 사범 2.6%의 순이다. 살인·강도·강간·방화·성폭력 등 강력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1991년도에는 그 점유율이 1.3%였으나 1995년도에는 2.6%로 2배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도 미루어 볼수 있다. 따라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성적 비행이나 성범죄의 사전예방과 성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일탈 성행동과 현상을 다루어야 할 때, 정상 성 발달과 일탈 성행위는 분리된 개념으로 보기 보다는 청소년의 성장발달과정에서 연속체선상에 역동적 현상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사회문화적 가치, 신념, 규범, 자극들의 영향요인과 더불어 성정보를 얻는 과정이 정규적으로 체계화된 성교육을 통해서 보다 친구나 잡지나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얻는다(홍길유, 1989; 김언희외, 1993). 따라서 그릇된 성지식의 습득과 함께 자연스런 성 발달과정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식과 심리적 준비과정이 부족하여 바른 성 태도와 가치관 형성이 되지 못해서 일탈 성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체계적이고 정규적 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박순신, 1991).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비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현행 학교 성교육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며, 교사들도 현행 교과목 수업내용으로는 성교육을 할 수 없고, 교사의 인식 변화와 함께 성교육을 위한 정규수업의 배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

하고 있다(정영숙, 1993; 김용자, 1993). 특히 중등학교 성교육은 단편적이고 소극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여 시대에 맞는 효과적 성교육 방법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다(방미라, 1990).

이상의 내용에서 청소년의 성교육은 일차적으로는 정상적인 성의 발달과 성숙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자연스럽게 건전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의 형성과 확립단계가 요구된다. 더 나아가서 왜곡된 성인식과 잘못된 성지식으로 인한 일탈 성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단계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일탈 성행위에 노출시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치료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중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경험과 성 교육 실태를 일차적으로 사정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일탈 성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성 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시도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성태도와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강원도내에 소재하는 남 녀 중학교 4개교를 임의 표집하여 각 학년을 40명으로 여학생 240명 남학생 240명 총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문헌을 근거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양호교사, 장학사 교수 등 12명으로부터 내용을 검토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대상자의 사회적 특성 11문항, 정상 성발달 태도와 경험 27문항, 일탈성 태도와 경험 27문항, 그리고 성교육 경험과 요구에 대한 7문항으로, 총 68문항의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1996년 1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20일까지 학교 당국의 협조하에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480명분중 결과자료처리가 불가능한 60명을 제외한 420명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χ^2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사회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남자와 여자 중학생 각 210명으로 총 420명이다. 대상자중 대부분이 자기집에 살면서(97.6%), 부모와 함께 동거하거나(77.9%) 조부모도 함께 사는(10.5%) 가족형태를 보였고, 부모관계도 많은 수가 화목한 편이라고 하였다(80.5%). 대상자 부모의 직업은 자료수집한 지역특성상 회사원과 공무원도 많았지만(41.2%, 11.4%), 상업도 많은 것(26.0%, 24.8%)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대부분 대학졸업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75.8%, 61.9%).

대상자 부모가 맞벌인 경우가 43.3%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서, 방과후에 곧바로 집에 간다고 한 대상자가 63.1%를 차지하지만, 집에서 혼자이거나 형제끼리만 지내는 경우가 41.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과 독서실외에도 오락실이나 분식집이나 비디오방에도 소수의 대상자들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2. 성에 대한 태도와 경험

연구대상자의 성 태도와 경험은 정상 성 발달 내용과 일탈된 성행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상 성 발달에 대한 태도와 경험

(1) 초경과 동정

인간의 성 발달과정 중에서 이차성징으로 가장 의미있고 특징적인 것은 여성에게는 월경, 남성에게는

〈표 1〉 대상자의 사회적 특성

	구 분	실 수 (%)		
		남	녀	총계
학 년	1학년	141	141	282
	2학년	140	140	280
	3학년	139	139	278
	총 계	210	210	420
		(50)	(50)	(100)
동거가족	부모	327	(77.9)	
	조부모/부모	44	(10.5)	
	부나 모만	34	(8.1)	
	조부모	5	(1.2)	
	기타	10	(2.4)	
거주지	자기집	410	(97.6)	
	친척, 자취	14	(2.4)	
부모관계	화목한 편	338	(80.5)	
	무관심/싸우는편	70	(16.5)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사람	부모	223	(53.1)	
	형제	92	(21.9)	
	혼자	83	(19.8)	
	조부모/친척	22	(5.2)	
	기타			
귀가전 들르는 곳	곧바로 집으로	265	(63.1)	
	학원	53	(12.6)	
	오락실	39	(9.3)	
	분식집	31	(7.4)	
	독서실	7	(1.7)	
	기타(만화방, 비디오방, 노래방 등)	25	(6.0)	
	오락실			
부모 맞벌이	그렇다	182	(43.3)	
	아니다	238	(56.7)	
부 직업	농업/공업	42	(10.0)	
	상업	109	(26.0)	
	회사, 공무원	173	(41.2)	
	노동	26	(6.2)	
	무직	59	(14.0)	
	무응답	11	(2.6)	
	무응답			
모 직업	농업	6	(1.4)	
	상업	104	(24.8)	
	회사, 공무원	48	(11.4)	
	일용직	8	(1.9)	
	가사	192	(53.8)	
	무응답	28	(6.7)	
부 학력	중졸	41	(9.8)	
	고졸	47	(11.2)	
	대졸이상	316	(75.3)	
	무응답	16	(3.8)	
모 학력	중졸	61	(14.5)	
	고졸	80	(19.0)	
	대졸이상	260	(61.9)	
	무응답	19	(4.5)	

사정이다. 청소년기의 여자에게 신체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변화로서 초경을 경험하게 되는데 연구대상 여학생의 92.4%가 초경을 경험하였다(표 2-1). 초경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나타나지만, 77.9%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초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사정 현상중에서 청소년기에 남성호르몬의 분비와 정액 생성과 관련되어 자연스럽게 몽정을 경험하게 된다. 연구대상 남학생의 52.0%가 몽정경험을 하였고, 첫 몽정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부터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에 22.0%, 중학교 1학년에 43.1%, 중학교 2학년에 22.9%를 차지해 중학교 1학년을 전후하여 대부분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경과 몽정 경험시기는 대부분의 다른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강원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1997 ; 김상욱, 남현철, 1992).

남녀 중학생의 초경이나 몽정경험에 대한 반응은 기쁘다고 응답한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고(16%, 19.3%), 대부분이 마음이 무겁다거나 싫거나 뭐가뭔지 몰랐다 등 부정적으로 많이 느꼈으며, 남학생의 경우 9.2%는 몽정을 병에 걸린줄 알았다고 까지 반응하였다. 이런 결과는 남녀 중학생이 자신의 성적 변화와 발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서적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때부터 중학생이 성적 성장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다.

(2) 자위행위와 성충동

본 연구결과를 보면, 남녀 중학생이 자위행위 경험에 있어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p=0.0000)(표2-2). 여학생은 대상자의 82.4%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반면에, 남학생은 35.7%만이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고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한두번(23.8%), 여러번(14.8%)은 물론 자주 하는 것(14.8%)으로 나타났다.

자위행위에 대한 인식에서도 여학생의 46.7%는 하면 안된다고 응답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비해, 남학생의 17.6%만이 하면 안된다고 했고, 35.2%는 자연스럽다고 하여 남녀 중학생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p= .0000).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중에 하나는 자위행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남녀 중학생의 35.5%는 자위행위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성욕 발산에 대한 지식은 남녀 학생의 50.2%가 조금 알거

나 27.2%가 모른다는 응답은 이에 대한 지식 부족을 알 수 있다. 남학생 경우, 성상담 내용중 자위행위에 대한 것이 가장 많다는 다른 연구결과에서처럼, 많은 청소년이 실제 자위행위를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식부족으로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김홍균, 1991 ; 박순선, 1993). 정상 성발달과정에서 몽정이나 자위행위등에 대한 청소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건전한 성충동 해소는 물론 성적체성에 대해 자신감을 갖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표 2-1> 성별에 따른 정상 성발달 경험과 태도(초경과 몽정)

구 분		실 수 (%)
초경 경험	초경경험 여부	
	했다	194 (92.4)
	안했다	16 (7.6)
총 계		210 (100)
초경 시기	초등교 4년	1 (0.5)
	초등교 5년	16 (8.2)
	초등교 6년	72 (37.2)
	중학교 1년	79 (40.7)
	중학교 2년	25 (12.9)
	중학교 3년	1 (0.5)
	총 계	194 (100)
초경시 느낌	기쁘다	31 (16.0)
	마음이 무거웠다	55 (28.3)
	싫었다	37 (19.1)
	병에 걸린줄 알았다	6 (3.1)
	뭐가 뭔지 몰랐다	63 (32.5)
	무응답	2 (10.0)
	총 계	194 (100)
몽정 경험	몽정경험 여부	
	했다	109 (52.0)
	안했다	80 (38.0)
	무응답	21 (10.0)
총 계		210 (100)
첫 몽정 시기	초등교 3년이전	1 (0.9)
	초등교 4년	1 (0.9)
	초등교 5년	2 (1.8)
	초등교 6년	24 (22.0)
	중학교 1년	47 (43.1)
	중학교 2년	25 (22.9)
	중학교 3년	9 (8.3)
	총 계	109 (100)
몽정시 느낌	기쁘다	21 (19.3)
	마음이 무거웠다	15 (13.8)
	싫었다	3 (2.7)
	병에 걸린줄 알았다	10 (9.2)
	뭐가 뭔지 몰랐다	60 (55.0)
	총 계	109 (100)

〈표 2-2〉 성별에 따른 정상 성발달 경험과 태도(자위행위와 성충동)

구분	내용	실수 (%)		총계	x ²	df	p-value
		남자	여자				
자위행위 경험여부	전혀없다	75(35.7)	173(82.4)	248(59.5)	130.2395	4	.0000***
	한두번	50(23.8)	6(2.9)	56(13.3)			
	여러번	31(14.8)	1(0.5)	32(7.6)			
	자주한다	31(14.8)	1(0.5)	32(7.6)			
	무응답	23(11.0)	29(13.8)	52(12.4)			
자위행위 인식	자연스럽다	74(35.2)	9(4.3)	83(19.8)	78.9652	3	.0000***
	하면 안된다	37(17.6)	98(46.7)	135(32.1)			
	잘모르겠다	71(33.8)	78(37.1)	149(35.5)			
	무응답	38(13.3)	25(11.9)	53(12.6)			
성욕발산 지식	잘 안다	40(19.0)	29(13.8)	69(16.4)	1.2038	3	.1067
	조금안다	104(49.5)	107(51.0)	211(50.2)			
	잘 모른다	61(29.0)	53(25.2)	114(27.2)			
	무응답	5(24.0)	21(10.0)	26(6.2)			
성충동 자극요인 (해당사항 전부)	친구경험	65	43	108(13.7)			
	잡지사진	123	41	164(20.9)			
	PC통신	25	4	29(3.7)			
	성적공상	50	26	76(9.6)			
	잘생긴이성/남녀모습	59	43	102(13.0)			
	심한노출	103	13	116(14.8)			
	이성과 함께	37	35	72(9.1)			
	몸스칠 때	32	11	43(5.5)			
	없다	17	59	76(9.7)			
	총계	511	275	786(100)			
성충동 해소방법 (해당사항 전부)	정신적 자체	78	84	162(42.3)			
	취미생활	90	47	137(35.8)			
	비디오/책	23	2	25(6.6)			
	자위행위	41	4	45(11.7)			
	이성과 행위	5	2	7(1.8)			
	폰팅	6	1	7(1.8)			
	총계	243	140	383(100)			

*** p<.001

성충동을 자극하는 요인과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녀학생들 모두가 잡지나 사진을 보거나 친구의 경험을 들을 때 성충동이 자극된다고 보았고, 남학생은 심한 노출, 여학생은 잘생긴 이성이나 다정한 남녀모습을 볼 때 성충동이 자극된다고 하였다. 성충동 해소방법도 정신적 자체가 42.3%로 가장 많고, 취미생활(35.8%), 자위행위(11.7%), 비디오나 책을 본다(6.6%) 순으로 대부분은 건전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해도 폰팅(1.8%)은 물론 이성과 직접행위를 하는 경우(1.8%)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성충동 해소방법은

대다수가 건전하고 긍정적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충동에서 남학생의 자위행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이 올바른 성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3) 이성교제

청소년은 정상 성발달과정에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본 연구에서도 이성에 대한 관심은 남녀중학생의 11.9%만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고, 대상자의 68.6%가 중학교시기에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표 2-3). 이런 결과에서 중

학생이 이성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시기라는 것을 확인 할 수있다.

이성교제 범위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 사이(46.2%), 혹은 공부나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것(10.7%)으로 생각하며,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학생은 25.0%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 이성교제를 원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과반수가 넘으며(54.5%), 특히 남녀 학생간에 이성교제 희망정도가 유의하게 차

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많이 이성교제를 희망하였다.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있는 105명 대상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63명(60%)은 이성교제를 부모가 알고 있다고 하였고, 교제장소는 집안(73.1%)이나 등학교시(8.1%)로 나타났고, 이성과 만나서는 주로 산책이나 대화(39.7%), 게임이나 운동(16%), 비디오와 영화(14.4%)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표 2-3> 성별에 따른 정상 성발달 경험과 태도 (이성교제)

구 분	내 용	실 수 (%)		총계	x ²	df	p-value
		남자	여자				
이성 관심	자주생각함	35(16.7)	36(17.1)	71(16.9)	1.4188	3	.7011
	가끔생각함	145(69.0)	150(71.4)	295(70.2)			
	전혀생각안함	27(12.9)	50(11.0)	50(11.9)			
	무응답	3(1.4)	1(0.5)	4(1.0)			
관심갖는 시기	초등학생	40(19.0)	40(19.0)	80(19.0)	0.5138	3	.9158
	중학교	143(68.1)	145(69.0)	288(68.6)			
	생각안함	22(10.5)	22(10.5)	44(10.5)			
	무응답	5(2.4)	3(1.4)	8(1.9)			
이성교제 범위	공부/취미생활함께	23(35.2)	22(4.3)	45(10.7)	7.8147	3	.7316
	함께 고민 나누는 친구	96(45.7)	98(46.7)	194(46.2)			
	장래약속/성적 접촉	11(33.8)	2(1.0)	13(3.6)			
	무응답	78(13.3)	88(11.9)	166(39.5)			
이성교제 여부	하고있다	57(27.1)	48(22.9)	105(25.0)	1.2389	2	.5382
	안하고있다	147(71.0)	159(75.7)	308(73.3)			
	무응답	4(1.9)	3(1.4)	7(1.7)			
이성교제를 부모가 아는지	알고있다	37(65.0)	26(54.2)	63(60.0)	3.84146	1	.2628
	모르고있다	20(35.0)	22(45.8)	42(40.0)			
	총 계	57(54.3)	48(46.7)	105(100)			
교제장소	집 안	307(73.1)		420(100)			
	등학교	34(8.1)					
	노래방	26(6.2)					
	독서실	11(2.6)					
	야외공연	11(2.6)					
	영화관/비디오방	4(0.9)					
	기 타	27(6.5)					
	총 계	420(100)					
교제시 하는것	산책/대화	77(39.7)		194(100)			
	게임/운동	31(16.0)					
	비디오/영화	28(14.4)					
	공부	16(8.2)					
	술·흡연	25(12.9)					
	성접촉	17(8.8)					
미래 이성교제 희망여부	하겠다	126(60.0)	103(49.0)	229(54.5)	7.8147	3	.0711
	친구가 하겠다	13(6.1)	10(4.8)	23(5.5)			
	안하겠다	49(23.4)	63(30.0)	112(26.6)			
	무응답	22(10.5)	34(16.2)	56(13.4)			

12.9%의 대상자는 이성과 만나서 술이나 흡연을 한다고 하였고, 8.8%는 성접촉을 한다는 결과는 청소년이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과 실체는 다르게 올바르게 못한 이성교제 실태를 나타낸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의 이성교제를 알고 이성교제 장소가 집안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이 올바른 이성교제 문화와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일탈 성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중학생에게 상대 이성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예절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지도가 요구된다.

2) 일탈 성 행위에 대한 태도와 경험

(1) 음란매체

일탈 성 행위를 자극하는 요인으로서 음란매체에 대한 경험과 태도에 대한 조사 내용 모두에서 남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결과에서 보여준다(표 3-1). 음란매체 경험정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0). 여학생의 39.5%는 전혀 경험한 적이 없거나, 45.7%는 한두번 경험하였다고 한 것에 비해, 남학생은 8.1%만이 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고 했고, 여러번 경험한 남

<표 3-1> 성별에 따른 일탈 성행위 경험과 태도(음란매체)

구 분	내 용	남자	여자	총계	x ²	df	p-value
음란매체 경험정도	없다	17(8.1)	83(39.5)	100(23.8)	106.5467	3	.0000***
	한두번정도	93(44.2)	96(45.7)	189(45.0)			
	여러번	98(46.7)	18(8.6)	116(27.6)			
	무응답	2(1.0)	13(6.2)	15(3.6)			
음란매체 접한 방법	구입	23(11.0)	19(9.1)	42(10.0)	113.7325	7	.0000***
	친구빌림(돌려서)	127(60.4)	36(17.2)	163(38.8)			
	집에 있는 것	15(7.1)	30(14.3)	45(10.7)			
	만화가게/비디오방	7(3.4)	8(3.8)	15(3.6)			
	PC통신	6(2.9)	2(1.0)	8(1.9)			
	기타	13(6.2)	25(11.9)	38(9.0)			
음란매체 접한 시기	무응답	19(9.0)	90(42.9)	109(26.0)	79.7071	6	.0000***
	동성만남	49(23.3)	24(11.4)	73(17.4)			
	이성만남	8(3.8)	4(1.9)	12(2.8)			
	혼자서	46(21.9)	16(7.6)	62(12.8)			
	스트레스 해소	19(9.0)	16(7.6)	35(8.3)			
	아무때나	48(22.9)	27(12.9)	75(17.9)			
음란매체 본 느낌	기타	15(7.1)	19(9.0)	34(8.1)	106.3407	5	.0000***
	무응답	25(11.9)	104(24.8)	129(30.7)			
	성충동	59(28.1)	11(5.2)	70(16.7)			
	공상	64(30.5)	24(11.4)	88(21.0)			
	죄책/후회	31(14.8)	23(11.0)	54(12.9)			
	혐오감	14(6.7)	29(13.8)	43(10.2)			
음란비디오 시청 경험	기타	21(10.0)	27(12.9)	48(11.5)	58.0283	3	.0000***
	무응답	21(10.0)	96(50.0)	117(27.9)			
	전혀없다	48(22.9)	11.5(54.8)	163(38.8)			
	한두번	101(48.1)	79(37.6)	180(42.9)			
음란비디오 시청 장소	여러번	57(27.1)	13(6.2)	70(16.7)	60.3610	4	.0000***
	무응답	4(1.9)	3(1.4)	7(1.7)			
	집	143(88.3)	74(77.9)	127(84.4)			
	비디오방	3(1.8)	9(9.5)	12(4.7)			
	여관	5(3.1)	0(0.0)	5(2.0)			
	기타	11(6.8)	12(12.6)	23(8.9)			
총 계		162(63.0)	95(37.0)	257(100)			

*** p<.001

학생도 46.8%에 이른다.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음란매체를 경험한 정도가 높기는 하지만 전체 남녀중학생 중 72.6%가 한두번에서 여러번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이미 우리나라 중학생 성문화에 음란매체가 보편화되어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음란매체를 접하는 방법에도 남녀 중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000$), 남학생은 친구에게 빌리거나 돌려서가 60.4%에 이르며, 직접 구입하거나 빌리는 것도 11.0%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무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음란매체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친구에게 빌리거나 돌려서가 17.2%, 집에 있는 것이 14.3% 순이었다.

음란매체를 접하는 시기는 남녀 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0000$), 남녀중학생 모두가 동성친구와 만날때(17.4%), 아무때나(17.9%), 혼자서(14.8%) 순으로 나타났다. 음란매체를 보고난 뒤의 느낌도 남학생은 성적 공상(30.5%), 성충동(28.1%), 죄책감이나 후회(14.8%) 순으로 느끼는데 비해, 여학생은 혐오감(13.8%)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냈다($p=0.0000$).

음란매체중에서 청소년이 가장 쉽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음란비디오 시청경험은 남학생은 한두번(48.1%), 여러번(27.1%)이라고 한 반면, 여학생은 전혀없다(54.8%), 한두번(37.6%)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0$). 음란비디오를 보는 장소는 84.4%가 자신이나 친구집에서 보았다고 했으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남학생은 여관에서도 보았다(3.1%)고 하였다.

음란매체와 관련된 본 연구결과에서 보면, 남녀 중학생 모두가 동성의 친구집단에서 매체를 쉽게 접하면서 함께 경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음란매체에 대한 태도와 경험에서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음란매체를 더 쉽게 많이 접하는 것은 물론, 매체를 직접 구입하거나 빌리는 등의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매체를 접한 뒤 느낌도 여학생은 혐오감 등의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데 비해, 남학생은 성적 공상이나 충동 등 성욕구가 자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란매체 경험과 태도에서 남학생이 더 많은 빈도로 쉽게, 적극적으로 경험하여 일탈 성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중학생 성문화에서도 남녀에게 이중적인 기존의 성문화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남녀 중학생이 음란매체를 경험했다

는 결과에서 자극적이고 과다한 성 개방의 사회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성매체 경험 자체를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이 성과 관련된 매체를 비판적인 눈으로 보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태도를 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 현실속에서 청소년이 대중매체 등의 미디어 문화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주권의식을 갖고 통제하는 힘을 길러 스스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해야한다(더글라스, 1997).

(2) 신체적 성접촉

순결가치관에 대한 견해에서 남녀모두 순결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여학생은 83.3%에 이르는데 비해, 남학생은 48.6%으로, 남녀 중학생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0$). 전체 남녀중학생의 10.7%가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12.9%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지만 66.0%는 남자가 모두 지킬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아직은 순결에 대한 가치를 많이 두는 것을 볼 수 있다(표 3-2).

이성과 신체접촉경험 여부에서 남녀학생의 65.2%는 없다고 답하였고, 32.1%는 있다고 하였다. 이성과 신체접촉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 75명과 여학생 60명을 대상으로한 연구결과에서 남녀학생간에 신체접촉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7$). 여학생은 손잡기 63.3%, 가벼운 포옹 21.7%로 가벼운 신체접촉 양상을 보였다. 반면, 남학생은 손잡기 33.3%, 가벼운 포옹은 18.7%에 불과하고, 성교까지도 경험했다가 34.8%에 이르러 남학생의 일탈 성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성교경험이 있는 남학생 26명과 여학생 4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성교경험과 태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3). 성교 대상은 22명(73.3%)이 이성친구로 가장 많았고, 남학생의 경우 윤락녀라고 답한 사람도 4명있었다. 성교 동기는 상대가 좋아서가 17명(56.7%)으로 가장 많고, 자의반 타의반 6명(20.0%), 모르고 5명(16.5%), 강제로 2명(6.7%)순이었다. 이런 결과는 앞서 이성교제에 관한 결과에서 중학생이 이성교제의 범위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나 공부와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결과에서는 자제하지 못하는 쾌락의 성에 빠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청소년기는 미래 보다는 즉각적인 경험과 현재 세계에만 관심을 갖는 제한된 사고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심사숙고하기 전에 경험을 하여

〈표 3-2〉 성별에 따른 일탈 성행위 경험과 태도(신체적 성접촉)

구분	내용	남자	여자	총계	χ^2	df	p-value
순결가치관 견해	모두필요	102(48.6)	175(83.3)	277(66.0)	57.8456	6	.0000***
	남자만	1(0.5)	0(0.0)	1(0.2)			
	여자만	12(5.7)	3(1.4)	15(3.6)			
	경우에 따라	40(19.0)	14(6.7)	54(12.9)			
	필요없다	20(9.5)	4(1.9)	24(5.7)			
	모름 무응답	32(15.2) 3(1.4)	13(6.2) 1(0.5)	45(10.7) 4(1.0)			
이성과 신체접촉 경험여부	있다	75(35.7)	60(28.6)	135(32.1)	2.6918	2	0.2603
	없다	129(61.4)	145(69.0)	274(65.2)			
	무응답	6(2.9)	5(2.4)	11(2.6)			
신체접촉 유형	손잡기	25(33.3)	38(63.3)	63(46.7)	21.4281	4	.0007***
	가벼운 포옹	14(18.7)	13(21.7)	27(20.0)			
	입마춤	5(6.6)	3(5.0)	8(5.9)			
	몸만지기	5(6.6)	2(3.3)	7(5.2)			
	성교	26(34.8)	4(6.7)	30(22.2)			
	총 계	75(55.6)	60(44.4)	135(100)			

*** p<.001

상처를 가질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이런 특징 때문에 책임있는 성행동에 일관적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도 실제 행동에서는 불일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 성교 경험 시기는 전체 대상자의 63.4%가 중학교에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5명, 초등학교 입학전에도 6명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성폭력이나 타의에 의한 성폭력의 가능성도 시사해준다. 성교 발생 상황으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10명(33.3%)이라고 하였지만, 이성교제중 10명(33.3%), 모임이나 캠핑, 공원이 각 4명(13.3%)으로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다. 성교를 주도한 장소는 11명(36.7%)이 자기나 친구집이라고 했고, 비디오방과 유흥장이나 여관에서 각 7명(23.3%), 공원과 유원지 5명(1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서 연구 대상자의 많은 수가 부모가 맞벌이 부모이고 집안에 혼자이거나 형제들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나 친구 집이 성교 장소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청소년이 많이 가는 비디오방이나 노래방등의 유흥장도 성 일탈 행위를 조장하는 환경이 되므로,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건강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환경조성과 여건이 선결과제를 제시한다.

성교의 느낌에 대해서는 남학생은 좋았다가 17명

(56.7%)으로 가장 많았고, 느낌이 없다, 부끄럽다, 화가 난다라고 일부 반응하였다. 반면, 여학생은 부끄럽다, 무섭다, 느낌이 없다고 반응하였다. 이런 결과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성교후에 반응이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많은 남학생들의 이런 반응은 쾌락 중심의 성태도가 이미 형성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성교횟수는 6회 이상이 12명(40.0%), 3-5회는 8명(26.7%), 1-2회는 10명(33.3%)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번 성교는 호기심에 의해 한 두차례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을 해 본 상당수의 학생은 여러 차례 반복하며 빠져드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생 계절은 여러 시기에 걸쳐 분포되기는 하여도 7-8월을 전후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남녀중학생이 이성교제 중에 혹은 여름방학때 모임이나 캠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가족들이 없는 빈집에서 순간적 감정으로 쾌락적 성행동으로 빠질 수 있음은 물론, 이런 성행동들이 한번에 그치기 보다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남녀 중학생들의 성적 욕구는 자연스럽지만 이성교제에서 상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과 예절을 갖고 사랑이라는 감정과 성적 충동을 판별할 수 있고,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태도 형성이 필요하다

〈표 3-3〉 성별에 따른 일탈 성행위 경험과 태도(성교) (n=30)

구분	내용	남자	여자	총계
성교대상	이성친구	19	3	22(73.3)
	알고있는사람(친척 등)	1	1	2(6.7)
	윤락녀	4	0	4(13.3)
	모르는 사람	2	0	2(6.7)
성교동기	상대가 좋아	14	3	17(56.7)
	자의반 타의반	5	1	6(20.0)
	모르고	5	0	5(16.6)
	강제로	2	0	2(6.7)
처음시기	초등학교 입학전	6	0	6(20.0)
	초등교	5	0	5(16.6)
	중학교	15	4	16(63.4)
발생상황	이성교제 중	7	3	10(33.3)
	모임/캠핑	4	0	4(13.3)
	공원	4	0	4(13.3)
	유흥지	2	0	2(6.7)
	예기치 못한 상황	9	1	10(33.3)
발생장소	자기친구집	11	0	11(36.7)
	비디오방 등 유흥장소	4	3	7(23.3)
	공원/유원지	4	1	5(16.7)
	여관	7	0	7(23.3)
느낌	좋았다	17	0	17(56.7)
	느낌없음	4	1	5(16.7)
	화가 남	2	0	2(6.7)
	부끄러움	3	2	5(16.7)
	무서움	0	1	1(3.3)
성교횟수	1-2회	8	2	10(33.3)
	3-5회	7	1	8(26.7)
	6회이상	11	1	12(40.0)
발생계절 (해당사항 전부)	1, 2월	7	0	7(7.7)
	3, 4월	7	0	7(7.7)
	5, 6월	9	1	10(11.1)
	7, 8월	13	6	19(21.1)
	9, 10월	10	2	12(13.3)
	11, 12월	9	0	9(10.0)
총 계		86	9	95(100)

(3) 성폭력

일탈 성행동의 대표적인 예로 성폭력 경험과 태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4). 남녀중학생이 강간이나 강제적 키스, 성과 관련된 의도된 행동 등의 직접적인 성행동은 많은 수가 성폭력으로 인식한 반면, 놀리는 행위나 음담패설 등의 언어적 행동을 성폭력이라고 보는 중학생은 적은 것을 보여준다. 성폭력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대상자는 남학생 16명(7.6%),

여학생 8명(3.8%)으로 전체 5.7%인 24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성폭력의 피해자가 여학생이 많다는 기존 보고들과는 다르게 나타났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9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7). 따라서 이런 결과는 남녀학생 모두에게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4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시기는 초등학교 입학전에서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10명(41.7%)이 중학교때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성폭력 가해자는 전체 대상자의 12명(50%)이 모르는 사람, 7명(29.2%)은 친구라고 답하였다.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나 어른들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보고와 예방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나 보고에서 제시되어왔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9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7).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또래 집단내에서 동성의 친구나 동년배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의 실태에 대한 대책이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생장소는 유흥장이나 공원, 혹은 학교와 학원 주변등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성폭행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과 관련된 상황적 요인으로는 여학생의 많은 경우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했고, 남학생 경우에는 모임과 캠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당한 후의 느낌에 대한 조사에서는 여학생은 화가남, 무서움, 죽고싶음, 느낌이 없다는 반면, 남학생은 화가남, 느낌이 없다고 일부 응답하였지만 과반수 이상인 10명(33.3%)이나 좋았다고 답하였다. 남학생의 이런 반응은 동년배들의 자의반 타의반에 의한 성폭력 가능성에 대해서 추후 연구에서 신중하게 더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을 당하고 난뒤 대처방법으로 선생님이나 부모와 상의하거나 상담소에 신고하는 경우는 각 1명(4.2%)로 극소수이며, 대부분이 혼자서 고민한다 14명(58.3%), 친구와 상의한다 7명(29.2%)이었다. 이는 실제로 청소년들이 성폭력과 같은 성문제가 발생하여도 가정이나 학교 혹은 상담소 등이 적절한 상담 역할과 효과적 기능을 못하는 것을 알려준다.

성폭력을 알렸을 때 주위의 반응은 도와준 경우(8명, 33.3%)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거나(13명, 54.2%) 소문을 냈다(3명, 12.5%)라고 답하여 학생 뿐 아니라 부모나 사회가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성숙

〈표 3-4〉 성별에 따른 일탈 성행위 경험과 태도(성폭력)

구 분	내 용	실 수 (%)		총계
		남자	여자	
성폭력 의미 (해당사항 전부)	강간	142	118	260
	강제키스	100	97	197
	의도적 행동	70	92	162
	놀리는 행위	15	16	31
	음담패설	14	19	33
	모두해당	25	53	78
	잘모름	13	16	29
	총 계	379	411	790
성폭력 경험	있다	16(7.6)	8(3.8)	24(5.7)
	없다	169(80.5)	184(87.6)	253(94.0)
	무응답	25(11.9)	18(8.6)	24(10.2)
	총 계	210(50)	210(50)	420(100)
피해시기	초등학교 입학전	6	1	7(29.1)
	초등학교	3	3	6(25.0)
	중학교	6	4	10(41.7)
	무응답	1	0	1(4.2)
	총 계	16(66.7)	8(33.3)	24(100)
가해자	이웃사람	1	1	2(8.3)
	친구	6	1	7(29.2)
	모르는 사람	6	6	12(50.0)
	무응답	3	0	3(12.5)
	총 계	16(66.7)	8(33.3)	24(100)
발생장소	상대집	2	0	2(8.3)
	학교/학원 주변	2	3	5(20.8)
	유흥장 공원	6	2	8(33.3)
	여관	4	0	4(16.7)
	기타	2	3	5(20.8)
	총 계	16(66.7)	8(33.3)	24(100)
발생상황	귀가중	2	1	3(12.5)
	모임/캠핑	6	0	6(25.0)
	유흥지	3	0	3(12.5)
	예기치 못한 상황	3	4	7(29.2)
	기타	2	3	5(20.8)
	총 계	16(66.7)	8(33.3)	24(100)
사고 후 느낌	화가 남	3	3	6(25.0)
	무서움	0	3	3(12.5)
	죽고싶음	0	2	2(8.3)
	느낌없다	3	2	5(20.8)
	좋았다	10	0	10(33.3)
	총 계	16(66.7)	8(33.3)	24(100)
	사고 후 대처방법	부모	0	1
친구		4	3	7(29.2)
선생님		1	0	1(4.2)
상담신고		1	0	1(4.2)
혼자고민		10	4	14(58.3)
총 계		16(66.7)	8(33.3)	24(100)
사실을 알렸을 때 주위반응		도와줌	4	4
	소문냄	3	0	3(12.5)
	무시함	9	4	13(54.2)
	총 계	16(66.7)	8(33.3)	24(100)

한 대처가 부족한 현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편중된 자료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내 어른들의 성폭력 문제와 여성의 성 피해와 더불어서 남학생의 동년배 집단 내에서 동성끼리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도 주목하여 관찰과 진단을 통한 예방과 해결방법 모색에 대한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성교육 경험과 요구

남녀 중학생의 성 정보나 교육 경험과 요구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중학생이 성 정보를 얻는 방법은 남녀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0000$), 남학생은 친구 46.2%, 대중매체 39.5%이고, 여학생은 교사 32.9%, 친구 29.0%, 대중매체가 26.2%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간의 차이는 학교에

〈표 4〉 성별에 따른 성교육 경험과 요구 (n=420)

구 분	내 용	실 수 (%)			χ^2	df	p-value							
		남자	여자	총계										
성정보 얻는 방법	부모	2(1.0)	9(4.3)	9(4.3)	11.0705	5	.0000***							
	형제	0(0.)	2(1.0)	2(0.5)										
	친구	97(46.2)	61(29.0)	158(37.6)										
	교사	18(8.6)	69(32.9)	87(20.7)										
	대중매체	83(39.5)	55(26.2)	138(32.9)										
	무응답	10(4.8)	14(6.7)	24(2.7)										
체계적 성교육 경험	있다	70(33.3)	81(38.6)	151(36.0)	2.4390	2	.2954							
	없다	139(66.2)	126(60.0)	265(63.1)										
	무응답	1(0.5)	3(1.4)	4(1.0)										
성교육 제공자	부모/가족	4(2.0)	9(4.3)	13(3.1)	22.4515	7	.0021**							
	양호교사	145(69.0)	166(79.0)	311(74.0)										
	담임교사	18(8.6)	9(4.3)	27(6.4)										
	친구	6(2.9)	1(0.5)	7(1.7)										
	책	15(7.1)	3(1.4)	18(4.3)										
	기타	5(2.4)	10(4.8)	15(3.6)										
	무응답	17(8.1)	12(5.7)	29(6.9)										
교육후 태도변화	변화있음	16(7.6)	26(12.4)	42(10.0)	3.2435	3	.3556							
	그저그랬다	132(62.9)	131(62.4)	263(62.6)										
	변화없음	46(21.9)	41(19.5)	87(20.7)										
	무응답	16(7.6)	12(5.7)	28(6.7)										
성교육 필요성	필요	191(91.0)	198(94.3)	389(92.6)	1.9407	2	.3789							
	불필요	17(8.1)	10(4.8)	27(6.4)										
	무응답	2(1.0)	2(1.0)	4(1.0)										
	적당한 성교육자	부모	39(18.6)	43(20.5)				82(19.5)	15.0113	.0202*				
	양호교사	98(46.7)	125(59.5)	223(53.1)										
	담임교사	7(3.3)	1(0.5)	8(1.9)										
	담당교사	19(9.0)	8(3.8)	27(6.4)										
	매스컴/대중매체	29(13.8)	21(10.0)	50(11.9)										
	기타	10(4.8)	6(2.9)	16(3.8)										
	무응답	8(3.8)	6(2.9)	14(3.3)										
	교육받기 원하는 내용	신체변화	50(23.8)	31(15.2)							82(19.5)	55.0762	6	.0000***
		남녀생리	46(21.9)	14(6.7)							60(14.3)			
		몸관리	11(5.2)	16(7.6)							27(6.4)			
이성교제		50(23.8)	44(21.0)	94(22.4)										
성폭력		22(10.5)	76(36.2)	98(23.3)										
기타		31(14.8)	28(13.3)	59(14.0)										

* $p<0.05$ ** $p<0.01$ *** $p<0.001$

서 교사들이 여학생을 중심으로 초경 등의 신체변화 등의 일정한 범위의 교육을 하지만, 남학생들에게는 거의 성과 관련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것과 관련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남녀중학생들이 동년집단내에서 성정보를 가장 많이 주고받으며, 흥미위주의 편파적인 성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학생들은 성정보를 정규적으로 체계화된 성교육 보다는 친구나 잡지, 신문, 더 나아가서는 PC통신(siber-sex)을 통한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습득한다고 하였다(김진선, 1996). 이런 방법을 통한 성정보는 정확하지 않거나 쾌락위주의 왜곡된 경우가 많으므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부모에게서 정보를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4.3%로 가정에서 성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교육은 학교에서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중학생들의 개별차이를 고려하여 가장 잘 지도할 수 있는 자연스런 성교육의 학습장은 바로 가정이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성교육을 받아본 학생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 여부와 관련되서는 전체 중학생의 36.0%만이 받아본적이 있다고 했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육후에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10%밖에 안되며 그저그랬다가 62.6%, 변화가 없음이 20.7%로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제시한다. 이는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남녀 중학생의 92.6%가 필요하다고 응답에서 볼 때, 성교육의 요구도는 높지만 실제로 효과적이거나 체계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성인과는 달리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성장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체계적 성교육의 방법으로 학교 교과과정내에 정규 교과목으로 새롭게 도입되거나 다양한 교과속에 성교육이 실제로 포함되어 결혼이나 가정생활의 협동, 개인의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흥미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 고등학교에서 교과서에 없는 성문제를 토론으로 즐겁게 배운다는 기사에서 처럼(중앙일보, 1997.10.28.), 일방적 주입식 교육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하고 토론과정등을 통한 비판적 사고능력을

높여주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 성 교육을 실시한 성교육 제공자를 조사한 결과에서 남녀 중학생별로 유의한 차이는 있었지만($p=0.0021$), 학교에서 양호교사가 아직은 성교육을 가장 많이 제공해 주는 사람으로(74.0%) 나타났다. 또한 남녀 중학생이 성교육을 하기에 적당한 성교육자로 53.1%가 양호교사라고 응답한 결과에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교상황에서는 양호교사가 성교육을 주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의 적당한 성교육자로는, 실제 부모가 자녀에게 성교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일지라도 부모가 적당한 성교육자라고 19.5%라고 응답하였으며, 대중매체를 통해서 11.9%, 성교육 전담교사가 6.4%로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은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성교육을 받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효과적으로 성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교육매체로 인쇄물이나 시청각 자료의 개발도 필요하고 성교육 전문 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성교육 전문교사 양성과 채용을 위한 행정과 교육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전인 교육으로서의 성교육과 학생을 포함한 다른 일반교사와 부모의 올바른 성을 주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성교육 전담교사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경우, 가장 성교육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양호교사이므로 이와 관련된 제도적 지원과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남녀 중학생이 교육받기를 원하는 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0000$), 남학생은 신체변화(23.8%), 이성교제(23.8%), 남녀생리(21.9%)를 많이 교육받기 원했으며, 여학생은 성폭력(36.2%), 이성교제(21.0%), 신체변화(15.2%)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청소년들이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성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폭력과 같은 일탈 성행위에 대한 강조나 신체변화와 특정 현상에 대한 교육은 진정한 성교육으로 부족할 수 있다. 시대 흐름이나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면은 물론 사회적이고 윤리적 측면을 병행한 인간교육이 되어야 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성교육이란 단순히 인간의 생리적 구조나 기능과 해부학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교육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가치추구와 직결되는 교육이 되

어야 한다는 점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다(김정태, 1992). 즉 청소년에게 성장발달에 맞는 성지식과 태도,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적 욕구를 승화시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하고 신뢰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바른 성윤리관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 청소년이 되기 위한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양순옥, 정금희, 1998).

본 연구에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남녀 중학생의 정상 성발달이나 일탈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 태도와 경험의 실태와 성교육의 실시현황과 요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 중학생들의 성경험과 성교육의 현실에 대한 진단도 중요하지만 성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접근과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일차적으로 청소년의 정상적 성의 발달과 성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성교육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왜곡된 성 태도나 일탈 성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성 교육, 마지막으로 실제 일탈 성행위로 고민하는 청소년 중심의 상담과 치료과정으로서의 성상담과 교육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중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경험과 성교육 실태를 일차적으로 사정하여 지역사회내 청소년의 일탈 성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성 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서 연구를 시도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6년 11월 1일 부터 1996년 12월 20일 까지로, 강원도에 소재하는 남녀 중학교 4개교를 임의표집하여 학년당 40명으로 남녀학생 각 240명, 총 480명을 대상으로, 정상 성발달과 일탈 성행위에 대한 태도와 경험 및 교육 요구와 관련되어 연구자가 개발한 68문항의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중 자료가 미비한 60명을 제외한 420명을 대상으로,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백분율(%), χ^2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녀 중학생의 정상 성 발달과 관련된 내용으로 초

경과 몽정, 자위행동과 성충동, 이성교제 경험과 태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 여학생의 92.4%가 초경을 경험하였고, 남학생의 52.0%가 몽정을 경험하였고, 초경과 몽정경험에서 여학생의 74%, 남학생의 81.7%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 2) 자위행위경험에서 남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000$), 여학생은 82.4%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반면, 남학생은 35.7%만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였고, 자위행위 인식정도도 남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00$), 전체 학생의 35.5%는 잘모르겠다, 32.1%는 하면 안된다고 응답하여 자위행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이성교제와 관련된 경험과 태도에서는 대상자의 87.2%가 이성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했고,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중학생은 25.0%이며 이중 60%만이 이성교제 사실을 부모가 알고 있다고 하였다. 미래 이성교제를 희망하는 학생은 54.5%이며, 특히 남학생이 더 희망하였다($p=0.0711$). 교제 장소는 집안 73.1%로 가장 많았고, 12.9%는 술이나 흡연을 하기도 하며, 8.8%는 성접촉까지도 한다고 하였다.

2. 남녀 중학생의 일탈 성행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음란매체, 신체적 성접촉과 성폭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음란매체 경험 정도에서 여학생은 39.5%, 남학생은 8.1%가 경험한적이 없다고 하며 남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0$). 그러나 전체 남녀중학생의 72.6%가 한두번 이상은 음란매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성문화에 보편화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음란매체를 접하는 방법과 시기나 음란비디오 시청경험과 관련되어 모두 남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0$). 보고난뒤 느낌은 남학생은 성적 공상 30.5%, 성충동 28.1%등의 순인 것에 비해, 여학생은 혐오감 13.8%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비디오 시청경험은 남학생은 한두번 48.1%에서 여러번 27.1%인데 비해, 여학생은 전혀없다 54.8%에서 한두번 37.6% 순으로 나타났다. 보는 장소는 84.4%가 자신이나 친구집에서 보았다고 했다.

- 2) 신체적 성접촉과 관련되서 남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83.3%, 남학생은 48.6%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00$), 이성과 신체접촉경험 여부에서 전체 학생의 65.2%는 없다고 하였으나 남녀학생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7$). 신체 접촉유형은 여학생은 손잡기 63.3%, 가벼운 포옹 21.7%인 반면, 남학생은 손잡기 33.3%, 가벼운 포옹은 18.7%에 불과하고, 성교까지도 경험했다가 34.8%에 이르러 일탈 성행위를 보여주었다.

성교경험이 있는 30명(남학생 26명, 여학생 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성교대상은 22명(73.3%)이 이성친구로 가장 많았다. 성교동기는 상대가 좋아서 17명(56.7%)으로 가장 많았다. 처음 성교 경험시기는 중학교때가 63.4%가 가장 많았고, 성교발생 상황으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10명(33.3%)이나, 이성교제중 10명(33.3%)가 많았다. 성교 장소는 11명(36.7%)이 자기나 친구 집이라고 했고, 성교시 느낌은 남학생은 좋았다 17명(56.7%)가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부끄럽다, 느낌이 없다 등으로 반응하였다. 성교발생 계절은 7-8월을 전후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주고, 성교횟수는 6회 이상이 12명(40.0%)으로 한번 경험은 반복하여 빠져들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3) 성폭력을 경험한 대상자는 남학생이 16명(7.6%), 여학생이 8명(3.8%)으로 전체 24명(5.7%)가 경험하였다.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4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10명(41.7%)이 중학교때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고 하였고, 성폭력의 가해자는 12명(50%)은 모르는 사람, 7명(29.2%)은 친구라고 하였다. 발생장소는 유흥장이나 공원이 8명(33.3%)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성폭력 대처방안으로 혼자서 고민하거나(14명, 58.3%), 친구와 상의를 하는 경우가(7명, 29.2%)가 많았다. 성폭력을 알렸을때 주위반응은 도와주기(8명, 33.3%)보다 무시한 경우가 많았다(13명, 54.2%).
3. 남녀 중학생의 성 정보와 교육 경험과 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성정보를 얻는 방법에서 남녀 중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0000$), 남학생은 친구

6.2%, 대중매체 39.5%이고, 여학생은 교사 32.9%, 친구 29.0%순으로 나타났다. 36.0%만이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74.0%가 양호교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성교육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상자의 10%만이 교육후 태도 변화가 있었다 하였다.

- 2)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2.6%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적당한 성교육자로는 양호교사 53.1%, 부모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받기를 원하는 내용은 남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000$), 남학생은 이성교제와 신체변화가 각 23.8%, 남녀생리 21.9% 등의 순으로, 여학생은 성폭력 36.2%, 이성교제 21.0%, 신체변화 15.2%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이 정상 성발달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자연스런 학습의 장을 통해 올바른 성정체감 형성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 부모는 물론 청소년의 요구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교육매체와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2. 개방적이고 자극적인 성 문화 현실속에서 청소년 자신이 비판적인 사고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성교육이 되기위해 토론과 분석 등의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3. 성교육이 양호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상황을 근거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4. 동성의 동년배 집단에서 일어나는 남자 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한 추후 조사를 통해 예방과 대책에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상욱, 남현철 (1992). 일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의식태도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5(2), 42-65.
- 김수지, 노춘희 (1990).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대한간호, 29(2), 11-15.
- 김언희, 정문숙 (1993).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요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0(2), 40-55.
- 김영희, 이명화 (1997). 성교육이 초등학생의 성에 대

- 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3(2), 255-275.
- 김옥렬 (1992). 국민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익기 (1991). 현대사회문제.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김정옥 (1988). 학교 성교육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태 (1992). 청소년의 성교육. 한국학교보건학회지, 5(2), 38-41.
- 김진선 (1995).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174-189.
- 김한경 (1983). 학교의외 가정생활 및 성교육, 고등학교 성교육 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김한경 (1986). 청소년 성상담전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례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김홍균 (1991).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학 석사학위논문.
- 대한가족계획협회 (1997). 청소년 성문제 대처방안 세미나 보고서.
- 더글라스 켈너 (1997). 미디어 문화. 서울: 새물결.
- 동아일보사 1987.8.20일자
- 박순선 (1993). 국민학교 5,6학년 학생의 성교육 실시 전후 성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순신 (1991). 국민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성지식에 관한 조사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미라 (1990).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미친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제하 (1989). 교과과정 체계적 성교육 필요.
- 블레이 (1982). 청년심리학. 서울: 배영사.
-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편찬 (1994). 성교육. 서울: 현문사.
- 송정부(1992). “청소년의 문제행동”. 「청소년 문제론」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송정부 (1992). 청소년 문제론. 서울: 한국청소년 연구원.
- 안창선, 김현옥 편역 (1991). 학교 성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양순옥, 정금희 (1998). 제대로 알면, 자녀의 성교육 문제없어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 이순열 (1991). 성교육 도서를 활용한 성교육 지침 실천연구. 서울: 구로중학교.
- 이옥철 (1990). 서울시내 일부국민학교 학생학부모의 성교육요구도 조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요식, 김재인, 정해숙, 양예경 (1992). 제6차 교과과정에서 성교육 내실화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임미립 (1996). 중학생의 성교육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간호과학, 8(2), 201-212.
- 임희섭 (1991). “공동체의 해체 문제”. 「현대한국사회문제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전광문 (1983). 우리나라 청소년 성문제의 현황(고등학교 성교육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7, 5-24.
- 정영숙 (1993). 서울시내 국민학교 양호교사의 성교육 실시 실태 및 참여 태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진 (1987). 국민학교 아동의 성교육에 관한 연구 -여학생을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중앙일보 (1997). 신체변화기의 청소년 성교육. 10월 28일자.
- 최순희 (1990). 중학교학생과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 조사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119-134.
- 최양자 (1987). 근로청소년들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 42-6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7). 강원도여성의 성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추천지부.
- 한국여성개발원 (1994). 사춘기 자녀의 성,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서울: 삼화출판사.
- 한유정, 박인혜 (1996). 성교육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간호과학논집, 1(1), 23-40.
- 홍길유 (1989). 국민학교 성교육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덕률 (1991). 현대사회문제.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Adams G. (1976). Human Sexuality : Recognizing the range of human sexual needs and behaviors. Matern Child Nurs J. 1, 165-169.
- Cassel, C. (1981). Putting Sex Education in its Place. J Sch Health, 51, 211-213.

- Cobb, N. (1992). *Adolescence : Continuity, Change, and Diversity*. London: Mayfield pub Com.
- Dacey J. S. (1986). *Adolescents Today*, 3rd. ed., Lillinois : Scott Fresman & Com.
- Freud, A. (1958). *Adolescence in Psychoanalytic Study of Child*,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 Heisler, A. B., Stanford, B. Friedman (1980). *Adolescence : Psychological and Social Development*. *J Sch Health*, 50, September. 381-385.
- Rubinson, L., Lorraine, B. (1981). *Planning School Based Sexuality Programs Utilizing the PRECEDE Model*. *J Sch Health*, 51, 2, 282-287.
- Stevens-Long, J., Nancy, J. C. (1983).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Los Angeles : Mayfield Pub Com.
- WHO (1989). *The Reproductive Health of Adolescents : A strategy for action*. Switzerland: MCH Division of Family Health.

- Abstract -

Key concept : Sex, Education, Sexual experience, Sexual attitude, Middle school student

Sexual Attitudes and Experience in Middle School Students, Kangwon-Do, Korea

Yang, Soon-Ok* · Jeong, Geum-Hee*
Paik, Sung-Sook**

As an initial step toward the improvement of sexual educ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a survey on sexual attitudes and experience was done in Kangwon-Do, Korea. Questionnaires consisted of 68 items distributed to 240 boys and 240 girls from November 1 to December 20, 1996. Answers from 420 students were subjected to an analysis with SPSS.

92.4% of the girls experienced menstruation. Of them, 74.0% showed a negative reaction. 52.0% of the boys experienced night ejaculation. Of them, 81.7% showed a negative reaction. Boys (64.3%) masturbated more than girls(17.6%)($p=0.0000$). The understanding of masturbation was higher in boys than in girls($p=0.0000$). 87.2% of the subjects wished meetings with the opposite sex. During the meeting with the opposite sex, 12.9% of the students enjoyed drinking or smoking, 8.8% had intercourse.

Boys(91.9%) watched pornography or porno-video more than girls(40.5%)($p=0.0000$). 83.3% of the girls thought that both males and females should keep their virginity until marriage. However, only 48.6% of boys thought that($p=0.0000$). Of boys who had experienced sexual touch, 34.8% had intercourse. Of the 30 students(26 boys, 4 girls) who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22 students had partners of the opposite sex and were friends. First intercourse 63.4% of these students had their in middle school period. The frequency of sexual intercourse(more than 6times) was written by 12 students(40.0%), 24 students(16 boys and 8 girls) experienced sexual violence. As for dealing with sexual violence, 14 suffered by him or herself while 7 students discussed it with a frie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ources of information between boys and girls($p=0.000$), 36.0% had learned from an official sexual education source, usually from school nurses(74.0%). 92.6% of the students thought that sexual education was necessary. They believed that the appropriate person for sexual education was from a school nurse(53.1%) or from parents(19.5%).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the following might be suggested : Realistic and future-directed sexual education material should be developed ;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students insight and control sexual desire should be prepared ; a systematic approach to activate the role of school nurse in sexual education should be prepared.

*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Hallym University

** Chunchon Middle School